

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작업반 실무회의 결과

『통합 및 분류 작업』

2007. 2. 1(목) ~ 2(금) 양일간 파리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작업반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음.(정인균 참사관, 수출입은행 조정화 과장, KOICA 김현원 참석)

- 참가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스위스 17개 회원국과 EC 및 한국, IMF

1. 핵심내용

가.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 (Emerging Typology)

- 원조형태, 국제수지구분(현금/물자/서비스), 기술협력구분 및 구속성(Tying Status)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새로운 원조형태 구분안 (Emerging Typology)에 대해 1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6월에 있을 58차 통계작업반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분류안에 대한 테스트에는 미국,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전 회원국이 명확한 원조형태 재분류 작업이 원조흐름에 관한 기존 용어들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세부 원조타입에 따른 국제수지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수원국 및 NGO 측에서 요구해 온 실질적인 원조흐름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나. 통합보고(CRS++) 추진현황 및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 사무국은 DAC통계(집계통계)와 CRS통계(건별통계)의 통합보고(CRS++)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한국(KOICA)을 비롯한 7개 회원국이 통합보고형태에 대한 실적자료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음을 언급하고, 특히 금번 회의 이전에 CRS++ 테스트 자료를 제공한 한국 측에 사의를 표명하였음.
- 통합보고 준비를 완료한 회원국들은 통합보고 체계가 기존 보고체계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및 오류 발생의 문제를 방지하여 ODA 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

다. 개발협력국 통계와 조직개편안

- 사무국은 통계와 원조의 새로운 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1부터 개발협력국 통계모니터링과의 기존 조직을 개편하여 4개의 섹션으로 재조정할 계획임을 보고함.
 - 실적집계섹션
 - 통계정책 및 Non-DAC 공여국 통계섹션
 - 원조확대(Scaling Up) 및 원조체계섹션
 - IT 조정 및 지원섹션

라. 통계작업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직에 벨기에 Mr. Geert Deserranno 후보, 부의장직에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대표가 등록하였으며 6월 통계작업반 회의 이전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에 선출을 위해 서면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2. 관찰 및 건의

가. DAC가입을 대비하여 집계통계인 DAC통계 이외에 원조사업 건별 통계인 CRS통계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바, 통합보고체계(CRS++) 가이드라인 및 타 공여국의 시스템 구축경험을 참고하여 한국의 ODA 통계보고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현재 KOICA는 CRS++ 기준으로 시스템 재구축 개발이 진행 중이며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보고 시스템은 추후 개선 예정임.

나. ODA 통계는 각종 발간물 및 원조관련 분석평가, 웹사이트를 통한 원조동향 홍보 등에 널리 활용되는 원조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수적 도구이므로, 한국 원조정책 홍보의 전략적 시각에서 ODA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며 각급의 원조수행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통계사무국 조직개편에서 Non-DAC공여국

섹션을 신설한 것은 최근 Non-DAC 공여국들의 역할과 DAC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3. 세부 논의내용

가.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Emerging Typology)

- 원조형태, 국제수지구분(현금/물자/서비스), 기술협력구분 및 구속성(Tying Status)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새로운 원조형태 구분안(Emerging Typology) 관련,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6월에 있을 58차 통계작업반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분류 안에 대한 테스트에는 미국,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전 회원국이 명확한 원조형태 재분류 작업을 지지하였으며 원조의 새로운 개념화 및 분류 작업이 원조흐름에 대한 기존 용어들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한편 세부 원조타입에 따른 국제수지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수원국 및 NGO 측에서 요구해온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원조흐름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IMF 참석 대표는 2004년 기준 국제수지 자료

와 ODA 실적자료 사이의 비교표를 제시하고 에티오피아의 경우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이 665백만 불이었던 반면 DAC 통계상에는 1,633백만불로 큰 차이가 나타남을 설명함.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원조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원조형태 구분 안을 통해서 국제수지 자료가 보고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하였음.

- 각국은 새로운 원조 형태 구분안의 각 항목의 적용 및 보고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원조형태구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다수의 국가들은 국제수지자료 보고 및 구속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우선적으로 신규 원조 형태 구분 안에서 원조형태(Type of Aid)를 테스트 해 보고 6월 회의에서 추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미국은 원조형태의 재분류가 개념의 명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구속성 여부에 관련하여 현재 DAC 테이블 7b의 구속성 실적은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Untied Bulletin Board 에 실제 언타이드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EC의 경우 테이블 7b의 자료는 보고하지만 Bulletin Board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구속성여부 항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 한국은 새로운 원조 형태 구분안의 도입에 대해 일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의 ODA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분 안대로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을 밝힘. 국제수지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KOICA는 월별, 년도별 원조실적의 국제수지 자료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의 보고에도 문제가 없음을 언급하였음. 한편, 구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언타이드 통계 보고방식이 실제 언타이드 적용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해당 이슈는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음.

고체계(CRS++)는 원조 통계의 질적향상 및 원조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KOICA는 실적자료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고 시스템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2006년도 한국의 ODA 실적에 대해 CRS++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임.

- 사무국은 CRS++에서 추가된 원조채널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코드를 활용하여 NGO나 다자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자간 원조 실적의 보다 정확한 집계와 분석이 가능해 지게 될 것임을 언급함.

나. 통합보고체계(CRS++) 추진현황 및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 2006년 6월 57차 통계작성반회의 및 통합 워크숍 이후 진행된 통합보고체계(CRS++)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사무국은 전체회원국들 중 이미 통합 테스트를 완료한 그룹, 진행 중인 그룹, 아직 테스트를 시작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어 있음을 설명하였음. 테스트를 완료한 그룹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EC, 그리고 한국(KOICA)가 포함되었음.

- 각국은 CRS++ 형태의 보고 가능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CRS++ 자료 보고 준비가 완료된 국가들 및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 국가들은 2006년도 흐름에 대해 CRS++형식의 보고가 가능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2007년 이후에 보고가 가능해 질 것임을 언급하였음.

- 이와 관련, 2005 및 2006년 자료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CRS++ 보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가능한 모든 국가들이 2006년도 실적자료를 CRS++형태 및 DAC 테이블 형태로 보고토록 하고 2007년도 실적 이후에 대해서는 6월 통계작성반 회의에

※ 한국은 DAC 비회원국이지만 통계작성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통합보

서 별도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기로 하였음.

- 한편, CRS++ 보고 가이드라인 자료는 6월 통계작성반 회의에서 승인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통계사무국은 CRS++ 체계 적용을 위한 로드맵 및 건별통계자료의 검증 절차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다. 통계작성지침 및 6월 통계작성반회의 관련 이슈

-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수행 규모의 증가에 따라 DAC에서 집계되는 ODA 실적과 개별 다자기구들이 집계하는 원조실적 사이의 차이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해당 실적을 양자와 다자 중 어디로 보고하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다자를 통해서 특정 수원국을 지원하거나 특정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됨.

- 회원국들은 원조채널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세부설명을 자세하게 입력하도록 독려하여 해당 정보들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 통계작성반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하였음.

- 그 외 6월 11일과 12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 58차 통계작성반 회의에서 논의 될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미불채무(outstanding debt) 통계의 최근 4년간 실적 재집계 문제, WTO와 OECD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무역관련 원조에 대한 통계 집계, 다중 원조목적코드 사용 방안, 치안관련 원조실적 사례집, ODA 차관의 양허성 문제 등이 포함될 예정임.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